

# 이준형, “한국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의 형성 과정과 특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이 연구는 한국 정치의 미디어화와 셀러브리티 포퓰리즘(행태 또는 전략)의 전개를 살펴보고 셀러브리티 포퓰리즘 전략의 한계와 더불어 그것이 좌파 포퓰리즘 기획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포스트민주주의적 위기, 정치의 미디어화, 셀러브리티화가 결합된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고, 후반부는 한국을 사례로 민주화 이후 포스트민주주의적 위기, 미디어 정치와 미디어 포퓰리즘의 전개, 그리고 촛불국면과 문재인 정부 시기의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과 평가이다.

이 연구의 가치는 한국에서 정치의 미디어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전략 또는 행태로서의) 포퓰리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본격화되었는지를 밝힌 동시에, 한국의 포퓰리즘을 미디어화된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좌파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비판한 것이다. 다만 토론자가 보기에는 이 논문은 경험적 분석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디어화된 정치를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만 설명하려 든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포퓰리즘이란 개념을 매우 제한된 분석적 개념으로만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의 기본적 논리로서의 포퓰리즘과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은데 있지 않느냐 싶다(즉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을 논하면서도, 실제로는 포퓰리즘 전략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포퓰리즘이 정치의 기본 논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이라고 해석하는 것). 이에 분석적 관점에서 이 연구가 보다 이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이론적 부분에서 저자는 그람시적 관점에서 사회질서와 위기를 파악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라클라우와 무페의 포퓰리즘 이론을 통해 정치를 분석한다. 이 두 이론의 접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비록 라클라우와 무페가 과거에는 그람시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람시와 단절했기 때문에, 이 두 이론 사이의 접합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고 보다 깊은 이론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특히 그람시에게 헤게모니는 명확히 계급 전략의 문제였지만, 라클라우에게 헤게모니는 그보다는 탈계급적인 정치적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저자는 정치의 미디어화가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디어화된 포퓰리즘 정치의 생산’이라고 본다. 물론 포퓰리즘이 정치적 실천이기 때문에 정치의 미디어화는 당연히 포퓰리즘 또한 미디어화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미디어화의 효과로서 포퓰리즘의 미

디어화를 논할 때 저자가 정치의 미디어화와 포퓰리즘의 미디어화를 구별하고 있는 것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분석적으로 말하면 정치의 미디어화가 미디어화된 포퓰리즘 정치의 생산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미디어화된 포퓰리즘 정치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화된 비포퓰리즘 정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포퓰리즘 논의에서 생기는 긴장은 라클라우가 “포퓰리즘적 이성”을 논한 반면 (즉 포퓰리즘을 모든 정치의 기본 논리로 보는 반면), 무페는 포퓰리즘을 전략의 수준에서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클라우적 노선을 취한다면 정치의 미디어화는 곧 포퓰리즘의 미디어화이다. 그러나 무페의 노선을 취한다면 포퓰리즘과 비포퓰리즘이 구별된다. 이 논문은 포퓰리즘을 포스트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무페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즉 포퓰리즘은 일반적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저자의 표현처럼 정치현상이자 정치적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전제 되어야 한다.

첫째, 이론적으로 포퓰리즘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석 대상의 성격을 입증하지 않고 사전에 포퓰리즘이라고 확정하거나, 아니면 포퓰리즘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쓰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라클라우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라클라우 자신이 주장하듯이 포퓰리즘은 모든 정치에 내재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미디어 포퓰리즘과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포퓰리즘이 다른 포퓰리즘과 비교해 갖는 성격 또한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치의 미디어화에 대한 연구나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라는 전체적 맥락들에서 이 연구가 차지하는 위치, 즉 그 기여와 의미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다.

둘째, 경험적으로는 포퓰리즘의 사례를 제시할 때, 정해진 기준에 의해 그것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노사모, 나꼼수 사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사례는 그것이 정말로 포퓰리즘 정치였는가에 대해 보다 신중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포퓰리즘적 요소(등가사슬, 경계 설정 등)가 없지는 않지만, 사실 이는 모든 정치에서 어느 정도는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인데다가, ‘체제회복적 포퓰리즘’이라든가, ‘노무현의 후계자, 정상적인 남성’이라는 기의가 들어간 기표, 카리스마적 리더십(인민과의 전반적인 소통 결여 포함)이나 포퓰리즘적 반 기득권 정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셋째, 이 연구는 (라클라우와 무페처럼) 분석의 포커스를 지나치게 운동과 정치현장에 두고 있어 한국의 국가와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성격이나 제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포퓰리즘을 논하고 있다. 노사모, 나꼼수, 촛불 같은 정치현상이나 운동으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은 그럴 수 있으나 적어도 정부나 정치전략의 성격을 논할 때는 그것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과 제약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셀러브리티 포퓰리즘이 경성적 팬덤과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른 자유주의적 구도를 특징으로 하고, 그 결과 자체 정당 우회보다 정당 장악을 추구하고, 그럼에도 양당체제 때문에 수동혁명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동혁명으로 귀결되기 쉽다).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진영논리, 자유주의 구도나 양당체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와 정치경제가 가지고 있는 친자본적인 전략적 선택성을 언급하는 것일 것이다. 그 속에서 포퓰리즘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정치경제적-구조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개인이나 정부의 성격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의 존재론적 지위(전략인가, 전술인가, 주요성격인가, 부수적 성격인가 등등)가 무엇인지가 분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